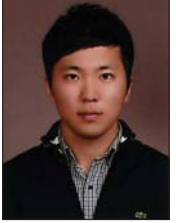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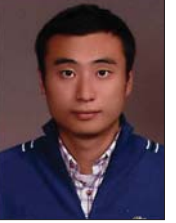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본격 시작 총학생회 <이공일이> 대 <YES, WE CAN>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이공일이	YES, WE CAN	여자친구	기존하나		
					
정준호 (법학 4·정)	강혁진 (지구해양 4·정)	오상은 (정치외교 2·정)	김진영 (경영 4·정)		
					
정재우 (국어교육 4·부)	고덕은 (경문 3·부)	오숙경 (경제 3·부)	김기완 (산업경제 3·부)		

2012학년도를 이끌어갈 학생 대표를 뽑는 '학생자치기구 총선거'가 지난 31일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오는 15일 투표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정치외교 4)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는 총학생회 후보로 △

외교 2) 부-오숙경(경제 3)이, 총대의원회 후보에는 △ '기존하나' 정-김진영(경영 4) 부-김기완(산업경영 3)이 출마한다. 동아리연합회는 입후보자가 없어 오는 11일까지 후보자를 추가모집하고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는 지난 1일 총학생회를 시작으로 총대의원회 2일 오후 12시, 총여학생회 3일 오후 1시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진행된다. 또 총학생회는 9일 오후 2시에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한번 더 정책토론회를 한다.

총대의원회 선거는 8일 학생회관 2층 한라를 앞에서 치러진다.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선거는 15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각 단과대학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총대의원회 정책토론회=2일 △총여학생회 정책토론회=3일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유세=7일 △총대의원회 선거=8일 △총학생회 정책토론회=9일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유세 14일,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15일.

고용희 기자



2012학년도 총선거 선거운동기간을 맞아 총학생회 선본들이 캠퍼스를 누비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공일이> 선본(왼쪽)과 <YES, WE CAN> 선본.



김명지 기자

학생들 선거에 강제동원하고 개인정보 침해까지

사전운동 난무... 선거세칙 보완해야

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있어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연·지연·혈연을 이용해 학생들을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에 끌어들인 경우도 적지 않아 선거운동 풍토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문자나 전화를 통한 의사표시와 사전선거운동은 추석 전후부터 시작됐다. 각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운동원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문자와 전화를 이용해 선거 슬로건과 '잘 부탁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멘트를 학생들에게 보냈다. 일부 운동원들은 대놓고 지인에게 '뽑아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41장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후 선거일까지 이의 기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뽑아달라'는 연락을 하면 불법이다.

사회학과와 한 학생은 "평소 연락

을 하지 않던 지인이 갑자기 특정 후보를 뽑아줄 수 있겠냐는 문자를 보내와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더불어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도 상당수 제보돼,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현연주(의류 1)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홍보 문자가 와서 내 번호가 어떤 경로로 알려지게 된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러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과 선배나 고등학교 선배, 친척 등이 협박·회유로 선거운동원을 모집하는 사례도 몇몇 나타났다.

한 학생은 "과 선배들이 같은 서귀포 출신이라는 이유로 활동하던 선본을 그만두고 자신들이 뛰는 선본으로 들어오길 강요했다"며 "명분은 부탁이었지만 실상은 거절하기 힘든 반강제적인 것이어서 결국 활동하고 있던 선본을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때 전교회장이었던 학생들이나 현재 과대표를 맡은 학생들은

특히 선본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등학교 시절 전교회장을 지냈던 한 학생은 "우리 단체에서 밀어주는 후보의 선본에 들어오라는 제의를 거절해 선배들과 친구들로부터 배척당했다"며 "상대편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 선본에 들지 않겠다는 것 뿐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현재 제주대의 선거 문화가 얼마나 인맥 위주의 혼탁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김은옥(인문홍보 1)씨는 "공약 위주의 선거운동보다는 일시적으로 시민들을 찾아다니거나 상대편 후보를 헐뜯음으로써 승리하려는 정치인들의 저급한 유세 방식을 학생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정확한 사실 판단을 내리기 힘들고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입을 다무는 경우가

사설

총장 직선제 폐지 압력, 어떻게 할 것인가

구조조정 중점추진 국립대학 선정 이후, 선정된 대학을 중심으로 진통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상황 변화도 있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원래 5개 국립대를 구조조정 추진대학으로 선정하였는데, 이중 부산교대에 대해서 총장 직선제 폐지 등,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을 수용하였다는 이유로 선정을 유예하였다.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대학 선정을, 총장 직선제 폐지와 연계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구조조정 선정 대학인 군산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평가 작업을 통해 국립대학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이 교과부의 목표”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압력 속에서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등 교원양성대학들은 모두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총장 직선제 고수 방침을 밝히던, 부산교대, 광주교대마저 지난 10월 18일,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받아들였다.

다만, 충북대는 구조조정 추진대학 선정과 총장 직선제 폐지 압력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북대는 교과부의 구조개혁 건설당을 거부하고, 자체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충북대 사무국장을 대기발령 하는 등, 강

경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국립대학들에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구조조정 추진대학 선정에서 벗어난 우리 대학의 경우, 뜻 밖에도 이런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추진대학 선정을 총장 직선제 폐지와 연계시키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구조조정 추진대학 선정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대학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대학에도 머지않아 밀어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다.

우선, 구조조정 추진대학 선정을 총장 직선제 폐지와 연계시키고 있는 교과부의 정책은 매우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취업률,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등의 기준에 따라 진행한 구조조정 추진대학 선정 평가를,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라는 별개의 정책목표에 따라 좌지우지되게 하는 것은, 평가 자체를 조롱하는 것이다. 총장 직선제 때문에 취업률, 충원율 등에 문제가 생겼다는 식의 논리는, 지금 우리 대학들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몰이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책적 상황이 만만하지 않다. 우리 대학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주체성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대학이라는 이름에 부끄러운 일이다.

곤이학지(困而學之)

인간에게 배움[學]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다. 배움으로 인하여 생물학적 인간이 가치론적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 인간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인간을 참으로 인간답게 하는 길은 배움이기 때문이다『논어』의 첫 편 역시 <학이(學而)>일 것이다.

공자는 “태어나면서 아는(生而知之) 자는 상등(上等)이요, 배워서 아는(學而知之) 자는 다음이요, 통하지 않는 바가 있어서 배우는(困而學之) 자는 또 그 다음이니, 통하지 않는 바가 있어도 배우지 않으면(困而不學) 백성으로 하등(下等)이다.”라고 하였다. 상등인 생지(生知)에 해당되는 성인들은 인류사에서 몇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인물들이다. 학지(學知)는 배우면 바로 이해하여 아는 영재들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스스로 “나는 나면서부터 안 자가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여 급급(汲汲)히 구한 자이다.”라고 하였다. 아무리 타고난 알아 있어도 배움에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우리 보통사람들은 노력하여 이해하지 못하면[困] 배우고 또 배워서[學] 아는[知] 존재이다.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에게 곤학(困學)하는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기에 이들의 결심은 크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곤이불학(困而不學)이다. 이들은 배우다가 통하

지 않으면 포기하고 만다. 포기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이다. 재미가 없어서, 대가가 미미해서, 환경 탓으로 등등. 결국 여러 이유로 불학(不學)을 택한다. 불학은 단순히 배움의 포기라 아니라 인생의 포기이다.

최근에는 배움에 있어 흥미와 재미를 중시한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는다면 그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다. 그러나 어떤 일도 그냥 좋아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전문가 혹은 달인들을 보면 좋아하여 시작하지만 경지에 이르기 위해 고난과 극복의 지난한 과정을 거쳤음을 알게 된다. 청소년들의 이상인 걸 그룹, 보이 그룹의 멤버들도 화려한 무대 이면에서 정상에 오르기까지 수년 동안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하곤 한다. 흥미와 재미의 단계를 넘어 고통을 감내하는 인내와 끈기의 과정을 거쳐야 『장자』에 나오는 이른바 ‘포정해우’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배움의 궁극에 이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견디어야 한다.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삶은 성공 여부를 떠나 벅찬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찬다. 쉬운 배움이 어디 있는가. 배움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참 자세다.

“자신감 갖고 최선 다하면 최고 될 수 있죠”

인터뷰 전국대학대항 10연패 달성한 옥상부

“화합과 단합이 이번 우승의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학대항육상대회에 여대부 부문 10연패를 달성한 옥상부(감독 임관철 체육진흥센터)의 말이다. 옥상부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 등을 따내 총합 94점을 얻어 종합 우승을 기록했다.

육상부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28일 체육진흥센터를 찾았다. 문을 열자 옥상의 주역인 윤인숙(체육학부 4) 선수와 오정순(체육학부 4) 선수, 임관철(체육진흥센터) 감독이 웃으며 반겨줬다.

이제 갖 대회를 마친터라 지쳐있을 법도 했지만 오랜 땀방울이 일군 승리의 기쁨에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다. 윤인숙 선수는 대회 직전까지 부상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로 인해 10월 초에 열린 전국체전에서도 제 기

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윤 선수는 이번 대회를 위해 매일같이 부상치료에만 전념해 컨디션을 회복하고 대회 3관왕의 저력을 발휘

통행로에 방치된 화학물질… ‘대학본부는 팔짱만’

인화·폭발성 물질까지… 인체에도 유해

“불나면 어떻게 하라고” 안전불감증 만연

인체 유해성 물질부터 인화·폭발성 물질까지 각종 화학물질들이 대학 건물 복도에 버젓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도를 지나는 통행자들 대부분은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 발암성, 변이원성, 독성, 호흡기와 민성물질, 유전자변이물질. 이 단어들은 자연과학대학 1호관, 생명자원과학대학 1호관 등 실험실이 많은 건물 내 복도에 비치된 화학물질들에 적힌 단어를 나열한 것이다. 이런 화학물질이 가득한 기자재들은 현재 공간부족 문제로 대부분 복도에 비치돼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건물 내 복도공간은 반 이상 줄었다. 문제는 이런 실험물질들이 무분별하게 복도에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통행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생명자원과학대학의 한 교수는 “연구실내에 이런 화학물질이 있으면 냄새도 좋지 않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 환기가 잘되는 복도에

보관했다”며 “그나마도 창문이 있던 곳에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가 생겨 통풍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 생명자원과학대학 행정실 관계자는 “이는 안전점검조사 때 지적받은 바 없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주흥구(수의학과) 교수는 “인화성 물질, 생물학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biohazard)이 외부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배치돼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통행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본부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안전상 문제와 더불어 무분별하게 늘어선 대형 기가제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생명자원과학대학의 한 대학원생은 “생명자원과학대학 복도에 기자재가 너무 많아 통행이 힘들다”며



각종 화학물질들이 복도에 빼곡히 배치돼 있다. 인체 유해성 물질과 인화·폭발성 물질이 놓여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통행도 불편하게 한다.

“공간이 있는 실험실로 장비들을 옮겨서 기거나 건물을 신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와 실험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마련을 위해 대학 본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학 측은 현재 공간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교사 확보율(대학 강의실, 실험실이 학생이나 강좌를 수용하는 비율)은 100%가 넘는 다며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고원복(기획평가과) 기획팀장은

“어떤 실험실은 공간이 넉넉한 반면 다른 곳은 좁다고 하루아침에 형평성 문제로 연구 활동을 하는 연구원들을 내쫓을 순 없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기득권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 팀장은 이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유지가 성사된다면 일부 실험실이 새로 생기는 건물로 이전돼 실험실 공간부족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부속시설 탐방 <9> 인쇄전자기술연구센터

인쇄전자 분야 세계 최고 도전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에도 친환경적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공과대학 4호관에 위치한 인쇄전자기술연구센터(센터장 최경현 메카트로닉스공학 교수)이다.

인쇄전자기술이란 인쇄 가능한 기능성 전자 잉크 소재를 이용해 초저가격의 프린팅 공정을 통해서 다양한 전자소자를 제작하는 기술이다. 아울러 기존의 도금이나 식각 방식과 달리 필요한 부분을 전자잉크로 인쇄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센터는 지난 3월에 개설돼 연구에 박자를 가하고 있다. 현재 센터의 구성원은 교수 3명과 박사과정 학생 22명인데,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 학생이 11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그만큼 세계적 관심사이고 많은 학생들이 이 분야의 연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 학생들은 인쇄전자기술 관련분야로 진출하거나 외국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며 활약하고 있다.



인쇄전자기술연구센터 연구원이 새로운 전자잉크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가 개설된 후 총 8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전기수력학적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 정전기력 분무 기반의 박막코팅 시스템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를 진행시켰다. 또한 한국기계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LG 디스플레이·삼성전기·SK화학·나노텍 등의 지원을 받았고 RISO(덴마크), RIKEN(일본), 위터루대학(캐나다) 등과 연

구 및 기술을 교류하고 있다. 센터는 앞으로 저가격과 빠른 공정을 이용한 기술을 연구·개발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기술을 전파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경현 센터장은 “인쇄전자기술은 기존의 인쇄 기술이 아닌 미래의 기술”이라며 “이 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 기술개발과 연구에 동참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형목 수습기자

“평생 배움의 즐거움 함께 나눕요”

제1회 평생교육축제

제1회 평생교육축제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평생교육원과 아라뮤즈홀에서 열렸다. 평생교육원(원장 안성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그동안 원생들이 갖고 닦은 솜씨들을 선보이고, 많은 도민과 학생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27일 오전 9시 반부터 제주대 일원에서 열린 길트기 행사를 시작으로 이날 오후 7시에는 아라뮤즈홀에서 한국무용, 판소리, 국악, 수필낭송, 라인댄스, 상송합창, 오카리나 연주, 색소폰 연주

● **총학생회 <이공일이>** 정-정준호(법학 4), 부-정재우(국어교육 4)



제44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이공일이' 정후보자 정준호(법학 4, 왼쪽) 씨와 부후보자 정재우(국어교육 4, 오른쪽) 씨

‘탈권위적 소통’으로 공감 부르는 총학생회

-출마동기.
“원활하지 못한 총학생회 활동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 단과대 학생회를 하면서 성취감도 있었지만 소통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도 많았다. ‘이공일이’라는 슬로건은 20대들의 2012년 열두 달을 위해 ‘이’ 제부터 ‘공’ 감할 수 있는 ‘일’ 만아라의 ‘이’ 야기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소통의 부재를 해소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총학생회를 만들겠다. 누군가를 위한 총학이 아니라 누구나를 위한 총학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통을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

-올해 뚝뚝뚝 총학생회를 평가한다면.
“전반적으로 공약이행 면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생회 활동이 일반 학생들이 아닌 단과대학 회장과 중앙운영위 활동이 주가 되고 있다. 총학생회실도 학생회관에 위치해 있지만 일반학우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이미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당선이 된다면 안에서만 있는 학생회가 아닌 밖으로 나가서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총학생회 사무실의 내부시설을 편하게 고치고 문을 유리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직접 밖으로 나가는 총학생회가 되겠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공약은.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 대학을 다니는 내내 등록금을 스스로 벌어서 마련했다. 등록금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후보자를 준비하며 기성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다. 등록금이 조금 인하된다고 해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인하가 되면 대학 측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쓸 수 있도록 감도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참여 비율을 늘리고 총학생회 내에 항시 유지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등록금 협상 결과를 학교에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할 때에도 협상 당시의 논의내용과 데이터를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취업캠프를 단과대학별 특성

에 맞춰서 내용을 개편하고 기업이 취업캠프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또 취업박람회를 제주대에 유치하겠다. 도내 유일한 국립대인 제주대에서 취업박람회를 연다는 것은 그만큼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학내에서 취업박람회가 열린다면 학생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수한 기업들을 취업박람회에 유치하고 각지에서 탐험하며 역량을 쌓고 있는 학생들을 밖으로 끌어낸다면 정규직 채용도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또 스마트폰에서 이러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예산확보는 대학 재정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면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원 측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확답도 들었다. 또 모바일 학생증으로 도서관에서 좌석 선택과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다음으로 현 총학생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인 디지털도서관을 우리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인데, 최대한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대동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대동제는 일단 아라만이 아닌 도민들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한다. 제주대학교 입구에 뿔뿔이 필 무렵에 대동제를 열어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또 올해와 지난해 대동제 예산 내역을 봤는데 연연에 초청 비용에 거품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 예산만 줄였어도 공약 이행률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당선이 된다면 연연에 초청비의 거품을 제거하고 학생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정책에 예산을 더 투입하도록 하겠다.”

-소수의 학생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를 준비하며 유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관심’이었다. 현 총학생회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생회실을 마련했는데, 인원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다. 유학생회실 확보에 힘쓰겠다. 또 아라체전 등 행사에서 유학생들이 한국인 학생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유학생회팀을

만들어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들을 위해 현재 총학생회 산하에 있는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를 독립시킬 계획이다. 장애인인권대책위가 총학생회와 같은 위치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다면 그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총장 선출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인가.
“학생의 총장 선출권 보장에 대해서 정책자료집에 실지는 않았지만 총학생회라면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위한 권리이고 학생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있다. 학생의 총장선출권이 총장을 위해 우선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총학생회가 잃어버린 대표성을 찾았을 때 총학생회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총장선출권을 바로 보장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총장선출 전까지 학생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게 밑거름을 잘 뿌려 놓도록 하겠다.”

-투명한 총학생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행사가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현수막을 거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공개해 투명한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대학 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의 주인은 누구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일단은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학생회가 힘을 받고 그래야 학교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밑에서부터 그 에너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 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들, 일반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가 상승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총학생회의 대표성을 가장 처음 얻을 수 있는 길은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일단아라의 소중한 권리인 한표를 투표해 제주대 발전을 위해 누가 적합한지 가려주셨으면 한다.” 고희경 기자

● **총학생회 <YES, WE CAN>** 정-강혁진(지구해양 4), 부-고덕은(영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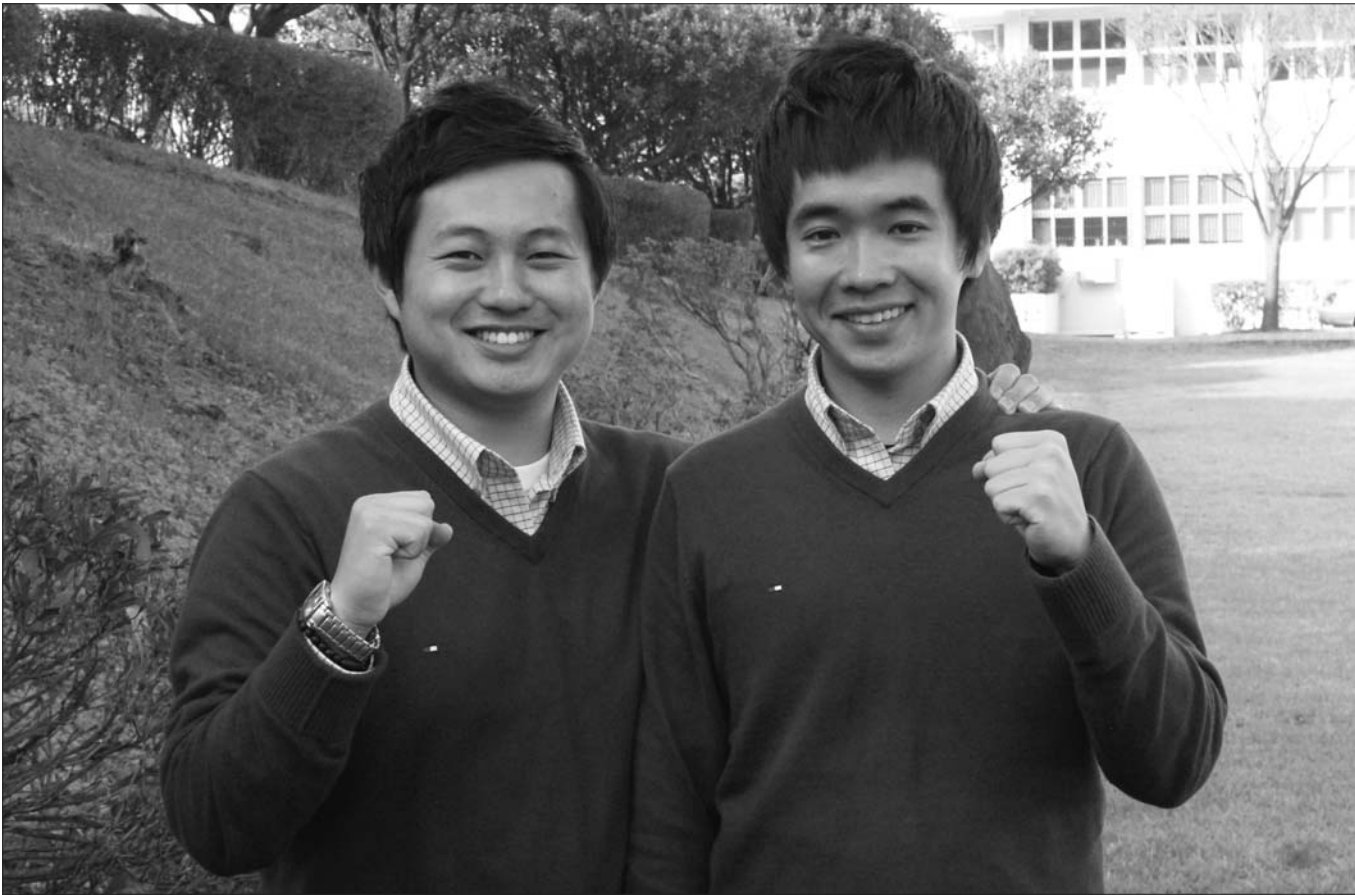


제44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YES, WE CAN' 정후보자 강혁진(지구해양 4, 왼쪽) 씨와 부후보자 고덕은(영어영문 3, 오른쪽) 씨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 주는 총학생회

-출마동기.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다고 생각

● **총대의원외 <기준하나>** 정-김진영(경영 4), 부-김기완(산업응용경제 3)



제27대 총대의원회 선거에 출마한 '기준하나' 정후보자 김진영(경영 4, 왼쪽)씨와 부후보자 김기완(산업응용경제 3, 오른쪽)씨.

과대표 독립성 보장에 최선 현실성 있는 공약 이행이 중요

-출마 동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우선 학생 자치기구가 전반에 걸쳐 형식적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에 따른 권한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과대표와 단대회장의 관계를 보면 과대표의 독립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과대표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생자치운영위원 한 명 한 명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둘째는 약력을 보면 알겠지만 나는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다. 평범한 ‘보통 사람’도 학교에 대한 애정 하나만으로 출마해 학교를 위해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나도 하니까 다른 여러 학생들도 학교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다.”

-입후보자가 생각하는 총대의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후보에 나오기 전까지는 총대의원회는 단지 학생회를 꺾어내리고, 선거 감사하는 기구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면서 ‘총대의원회는 어떤 기구여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많이 고민했다. 결론적으로 총대의원회는 모든 학생자치기구들이 신뢰받을 있도록 만드는 데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비판과 감시가 필요한 것이고 잘된 이행에 대해서는 칭찬의 목소리도 함께 낼 수 있어야 한다.”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주요 공약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과대표를 위한 무료 문자메시지 지원을 탄력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무료 문자메시지는 현재도 실시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의 운영을 보면 매달 정해진 숫자의 무료 문자 메시지가 할당된다. 그런데 월마다 학우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다르다. 예를 들어 3월, 9월은 개강 달이고 5월은 학과 행사가 몰려 있는 달이라 그럴 때 문자 사용량은 폭증한다. 반면에 방학기간에는 공지사항을 보낼 일이 거의 없어 무료 문자를 쓰지 않지만 이월되지 않는다. 잔여 무료문자를 이월할 수 있게 해 과대표들이 효율적으로 무료문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는 복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현재의 대의원증을 티머니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학생자치위원들이 공적인 일을 수행할 때는 복사카드가 없어도 사무실 내에서 무료로 복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복사 말고 더 필요한 부분으로 변경시켜 과대표가 좀 더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는 개강 초에 과대표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겠다. 과대표 중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과대표의 역할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다. 과대표가 자신의 역할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과대표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과대표를 맡았을 때 생기는 여러 혜택도 알려서 자부심을 갖고 과대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공약에서 언급한 ‘오리엔테이션 실시’가 감사평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초석이다. 일차적으로는 과대표가 스스로 자기검열을 통해 감사했을 때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소임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감사평가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단대 학생회가 지 감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당선이 되면 이번 겨울방학부터 준비해서 학과별 감사가 가능하게끔 초석을 다지겠다. 학과별 감사를 실시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기록하고 대안을 마련해 상반기에 불가능하면 하반기에, 하반기에 불가능하면 내년 총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 총대의원회가 잘못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잘했던 부분은 감사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현재와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를 잘 정착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년 전에 ‘대의원회’가 ‘총대의원회’가 된 것인데 현재 <육하원칙>이 짧은 기간 동안 그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아쉬웠던 부분은 홍보효과의 문제다. <육하원칙> 총대의원회에서 여러 사항들을 알리고 과대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일이 전화도 하는 등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때마다 정족수를 겨우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등 그 효과가 미미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준하나>에서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인가.
“‘우리는 공직했으니 그만이다’라는 안일한 사고를 탈피해, 지속적으로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그러한 방법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알게 된 과대표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가져 안면을 익히고 인간적으로 다가가 참여를 유도하겠다. 기본적으로 공과 사는 구분해야겠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돼 기계적으로만 소통하려 한다면 참여 유도가 잘 안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맥선거, 불법선거에 대한 생각은.
“제주도가 관당으로 이뤄진 지역사회다 보니 ‘인맥선거’라는 게 생긴다. 어떻게 보면 ‘관당문화’라는 제주도의 문화적 특수성에 의해 생긴 것인데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하고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 근절시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맥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보자를 알릴 때 후보자의 출신 동네나 출신고등학교를 나타내지 않고 공약 위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의 선거시행세칙이 만들어진 지 오래돼 지금의 현실로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SNS를 통한 예비후보자 홍보는 세칙에 없는데, 세칙에 없는 부분은 불법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SNS를 통한 홍보가 불법이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세칙의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다음으로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하는 등 불법선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엔 ‘예비후보자 등록’을 미리 받아서 제한된 틀 안에서는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큰 공약보다는 작은 것이지만 모두에게 혜택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또 이 공약들은 현실적으로 임기까지 전부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역대 총대의원회에서 가장 공약 이행률이 높은 거라 자부한다. 당선되면 공약 이행은 물론, 학생자치운영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미 넘치는 의장, 부의장이 되겠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끝까지 지켜봐 으면 좋겠다.”

현성미 기자

<기준하나> 입후보팀 공약 정리

학과대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신문과

제주해조 ‘감태’ 녹색성장 이끈다

특성과 사업단 연상 <4> 제주 해조산업 RIS 사업단

대풍이면 바닷가로 밀려오는 감태는 제주에서는 원래 잘 활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감태는 뛰어난 항산화효과 덕분에 ‘바다의 녹차’라고 불리며 제주의 효자상품이 되고 있다.

제주해조산업 RIS 사업단(단장 이남호 화학과 교수, 이하 사업단)은 감태와 같은 제주의 해조류를 이용한 산업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 기술지원에서부터 디자인, 마케팅까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산업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에 선정돼 해마다 약 8억원을 지원받으며 제주 해조산업의 ‘어미 캣거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업단은 제주지역 해조류를 활용한 산업을 창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제주바이오기업협회, 제주시 수협, 제주관광대, 종다양성연구소, (주)태림, (주)보타메디, (주)아쿠아그린텍 등 8개 기관과 기업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 연안에는 양질의 해조류가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화되고 있는 것은 톳, 우뚝가사리, 모자반, 갈래곰보, 감태 등 몇 가지에 불과하다. 상품화된 제품마저도 단순채취와 단순가공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업단은 제주지역의 다양한 청정 해조류를 이용해 한 차원 높은 제품들을 개발하고 해조류의 부가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남호 단장은 “해조류는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 그린푸드로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자원”이라며 “해조류가 워낙 예로부터 제주에 많이 있었던 자원이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사업단은 ‘해조류’라는 숨어있는 보석을 잘 찾아서 효자상품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단은 해조 분야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네트워킹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전국 해조산업 관련 전문가들과의 네트

워킹을 통해 도내 해조산업 업체들이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 지원도 해준다.

사업단의 도움을 받아 제주 해조산업을 이끌어갈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다. (주)보타메디는 녹차보다 뛰어난 감태의 항산화효과에 주목해 샴푸 등 모발치료제를 개발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주)보타메디는 원래 (주)라이브랩이라는 이름으로 원료만 판매하던 회사였다. 사업단의 지원을 통해 감태의 해조 탄닌을 이용한 제품개발에 성공해 업종을 탈바꿈했다.

(주)아쿠아그린텍 역시 감태를 이용한 기능성 소재 등 14종의 제품을 개발했다. 또 감태의 미백효과와 자외선차단 효과를 확인해 미백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러 업체들을 통해 제주의 해조류들은 각종 식품과 화장품 등으로 개발되고 있다.

사업단은 개발된 제품들이 시장에서 원활히 판매될 수 있도록 제주 해조류 유통·마케팅 전문업체인 (주)제주씨그린을 설립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단이 사업 1단계에서 제주의 해조산업 관련 업체들을 지원하며 제주의 해조산업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사업 시작 전인

2007년도에 해조산업 관련 업체가 5곳에 불과했는데 2010년에 37 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원을 통한 업체들의 신규 아이템 발굴로 매출과 수출액도 크게 성장했다. 매출은 2009년 기준으로 2007년에 비해 673억이, 수출은 240만 달러(약 26억 원)가 증가했다.

사업단은 이제 사업 2단계를 이행하며 제주형 마케팅시스템을 활용해 해조산업 관련 업체들의 수출과 내수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감태와 우뚝가사리, 미역소의 제품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남호 단장은 “특히 우뚝가사리는 제주가 한국 생산량의 70%를 맡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질이 제일 좋다”며 “그간 제주에서는 우뚝가사리를 팔기만 했지 제품화 해본 적이 없어서 내년부터 제품화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제주에서 해조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산업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주에는 제조업체 수가 크게 적어서 해조산업과 관련한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실현할 업체가 부족하다. 이 단장은 “제주에 제조업체 인프라가 부족해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업체를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할 업



지난달 24일 제주 해조산업 RIS 사업단 사무실에서 이남호 단장(가운데)과 백종석(왼쪽), 이지아 직원(오른쪽)이 사업단 기술지원으로 개발된 해조류 제품을 배경으로 미소짓고 있다.

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농수산 등 타 산업체가 해조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긴 하지만 제주에서 제조업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때는 사양 산업이라고 여겨졌던 해조산업, 사업단을 통해 해조류는 가장 기대되는 바이오 자원으로 재탄생했다. 사업단은 제주 고유의 향토자원인 해조류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

켰다. 사업단이 흘린 땀방울만큼 자립이 어려운 도내 해조산업 업체들은 성장해나가고 제주의 해조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이남호 단장은 “해조류를 연구하고 산업체들을 지원해 앞으로 더욱더 제주의 해조산업을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제주의 향토자원인 해조류를 잘 살려서 제주경제에 큰 원천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용희 기자



제주대학교(총장 허형진)는 JDC·제주의소리와 함께



무론유설

정창원
사학과 교수

현재 국제사회는 거대한 힘의 이동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나의 중심에서 벗어난 다(多)중심체제의 역학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 접근이 요구된다.

새롭게 재편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은 대국으로 다시금 등장하였고, 동아시아인의 역사적 기억 가운데 잔재한 중화제국의 이미지 또한 점차 퇴색아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상과 협력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중심과 주변이라는 종속적 개념의 질서가 재등장할 것이라는 위기감 또한 자연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전통시대 중국이 주도하였던 화이(華夷) 질서는 서양 제국주의의 경제·군사·외교 등 전방위에 걸친 침탈과는 다른 대형(大兄)·종가(宗家), 혹은 종법적(宗法的) 관념에 의한 동양적 리더십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근원 자체는 예(禮)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중심주의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화이질서를 대체하며 등장

한 일본 역시 '아시아주의'라는 명목아래 서양의 제국주의 침략모형을 아시아지역에서 그대로 답습하며 지역의 새로운 맹주로 자리매김하였고, 이후 패전으로 인해 아시아 공영권으로 포장된 전통적 제국주의 노선은 타의에 의해 마감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스스로의 역사인식에서 보이는 태도는 주변국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패권으로 등장했을 때에는 주변국가에게 전근대적이고 불평등적인 질서가 타의적으로 요구되어지리라는 예측 또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주변에서 인식하는 전통적 관념의 제국 혹은 제국주의적 이미지가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질 수는 없겠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두 개의 강대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국에는 심각한 위기의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서로가 다중심적인 관계설정에서 벗어나 하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려 할 때 중심과 대칭되는 주변은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중심과 경계를 넘어 - 동아시아를 보는 또 다른 시각

될 것이고 더하여 그 주변에 대해 전통적 화이질서 혹은 일본제국주의 질서의 강요와 같은 어두운 역사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 줄만 알았던 제국 혹은 제국주의에 우리는 왜 아직까지 그토록 우려하며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동번영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역사에는 전면적 단절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과거는 현재를 상당히 구속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 지역의 역사에는 커다란 하나의 중심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개의 소중심이 서로 축을 이루며 대등하게 역사를 구성하고 있다. 제국과 제국주의에 의한 질서와 지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야누스적인 의미를 지닌다.

패권안정이론가들의 정치학적 표현에 의하면, '거인'이 국제체계에 출현할 때 질서가 형성되고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단지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 존재이기에 질서

형성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보다는 자신의 국가이익을 더 중시하면서 질서를 구축하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이러한 거인들이 다시 등장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들은 단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물질적 욕구를 넘어 자국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예속된 서술로 자국의 역사를 미화하고 팽창하려는 정신적 욕구 또한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형성된 각국의 체제나 사회적 흐름은 서로의 지정학적 특성과 요구에 의해 진행되어 왔고, 이것은 전근대 사회에서 동아시아 사회의 흐름을 주도했던 국가와 그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던 주변국가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양상에서 기인한다. 때문에 지금은 바로 동아시아인들이 '미래지향적이고 다 중심적(혹은 주변 중심적)인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일원적 질서체제로 회귀하고 말 것인가'라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 탈 중심·탈 경계적인 흐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돌아보는

학연·지연은 가라, 이젠 정책선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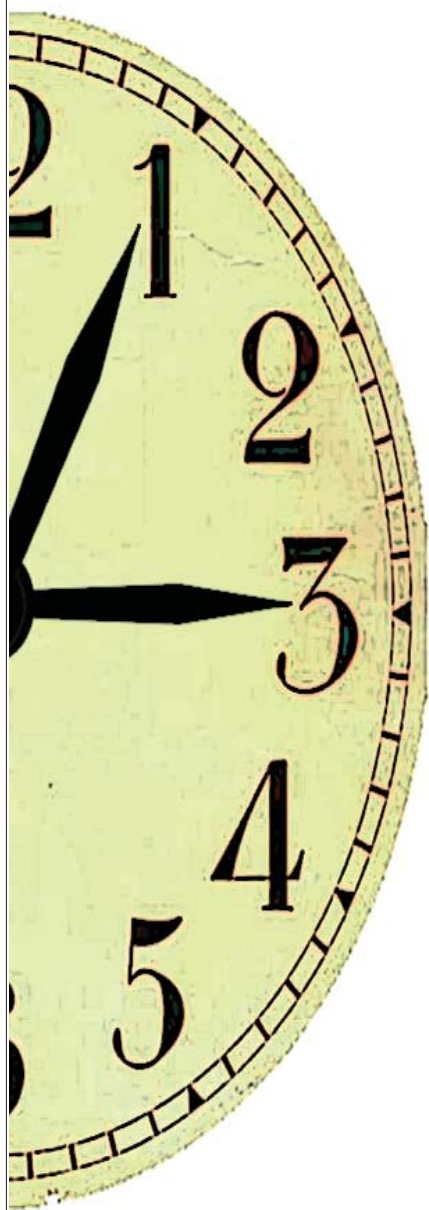
“다신 선거운동 안해!”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1학년 시절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한 학생은 거칠게 손사래를 쳤다. 선거운동 당시 선본이 운동원들에게 정책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휴대폰에 있는 친구들의 연락처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이다. 인맥중심의 선거운동에 실망한 그 학생은 다시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거라며 치를 떨었다. 지난 9월에는 한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한 학생에게서 연락이 왔었다. 자신의 선본을 뽑아달라는 것이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버젓이 선거운동을 하는 연락이 왔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정작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정책'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주요공약을 묻는 내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하고 이후에도 선본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연락은 오지 않았다.

선본들은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 편가르기 되는 양상이다. 선거운동원을 모집할 때도 단과대학이나 출신 고등학교, 출신지역 등으로 편이 갈린다. 학과에서 밀고 있는 선본이 아닌 다른 선본을 지지한다고 단체 협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선거운동원 활동을 하는 것은 후보자의 역량이나 정책을 지지함에 따라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대에서는 개인이 지지하는 선본이 학연, 지연, 혈연과 어긋나면 따까운 눈총과 뒷담화를 견뎌야 한다

우리 캠퍼스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알자



‘동생아’에서 ‘누나’
다시 ‘이모’로

아직 소녀 티를 벗지 못한 21살 아가씨는 제복을 잘 갖춰 입은 학군단 손님이 오면 얼굴부터 빨개졌다. 빨개진 얼굴을 분칠로 가리면 이번엔 쿵광 거리는 심장소리가 문제였다. 이발기 소리가 크게 울려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속으로 되뇌던 그 어린 아가씨는 제주대미용실의 어엿한 사장님이 됐다.

“여기서 일한지 벌써 17년이나 됐어요. 아는 언니 소개로 96년부터 일하다가 6년 전에 사장님한테 인수받고 미용실을 운영하게 됐어요.”

17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학군단 손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얼굴이 빨개졌던 그는 어느새 손님들과 호기롭게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오빠뻘이었던 학군단이 이제는 조카뻘이 됐다. 그는 거쳐가는 손님들을 보며 자신의 세월을 가늠한다.

“학생회관에서는 구내서점 다음으로 내가 제일 오래 있었어요. 나는 여기 건물 생기고 몇 년 안돼서 바로 와서 여태 있었으니까요. 여기 세월이랑 같이 해요.”

그의 손끝에선 시간이 묻어났다. 그는 미용실을 찾은 손님을 의자에 앉히고 물뿌리개로 머리를 가볍게 적시고 가위로 머리를 잘랐다. ‘씩씩씩’ 가위질 하는 소리, 몇 마디 대화 오가는 소리... 손님을 앉히고 헤어스타일을 완성하기까지의 모습은 마치 잘 짜놓은 컴퓨터 프로그램만큼 완벽한 기계를 연상시켰다. 세월은 그의 솜씨를 기계처럼 완벽하게 만들었고 그의 인품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만졌는데요. 오랫동안 미용만 하다 보니 커팅은 자신 있어요.”

그는 그동안 술하게 많은 손님들을 만났다. 몇 번 미용실 오다가 단골이 된 학생손님들은 졸업 후에도 제주대미용실을 찾았다. 오랫동안 봐온 손님들과는 머리하는 동안 인생 상담도 해준다. 졸업 후에 다니고 있는 직장도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그는 미용사로서가 아닌, 인생을 더 산 선배로서 진심어린 조언을 건넨다.



제주대 미용실을 17년째 지키고 있는 고은정씨 (38)

“마냥 어린 학생 같던 손님들이 어느새 졸업하고 와서, 힘들다는 얘기 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대견한 생각이 커요. ‘사회적 힘든 면을 몸소 깨닫는 만큼, 애네들이 어느새 이만큼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는 어느새 의젓한 사회인이 된 손님들이 제주대미용실을 잊지 않고 찾아올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졸업하고 서울로 취직한 손님이 추석연휴 때 제주도 왔다가 여기를 들른 거예요. 오랜만에 고향 와서 만나야 할 사람도 많은 텐데 기억하고 와줘서 고맙죠.”

‘누나’라고 부르며 미용실을 자주 찾았던 한 손님은 어느새 아가씨가 됐다. 캠퍼스 밖에서 우연히 마주친 삼십대 중반의 남자는 십 년 전 목소리를 그대로 간직한 채 ‘누나’를 부르며 인사한다.

학교는 그동안 많이 변했다. 새 건물이 들어서고 학교 안 학생들의 헤어스타일도 많이 변했고 알던 사람들은 떠났고 새로운 얼굴들이 다시 왔다. 그래도 그는 제주대미용실 그 자리를 계속 지킨다. 학교 안 추억 중의 일부는 제주대미용실에서 새겼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추억의 장소를 지켜야 나중에 돌아왔을 때 더 기쁘지 않겠나’고 말하며 웃는다. 수줍음이 배어나는 그의 웃음에서 17년 전, 그 어린 아가씨의 모습이 보였다.



영원한 흰머리 소년

학교 정문에 다다르면 제일 먼저 돌하르방과 돌하르방을 닮은 그가 보인다. 등교시간 개미떼처럼 몰려드는 차들을 수신호로 원활하게 정리한다. 그는 밝은 얼굴로 운전자에게 인사를 건네며 캠퍼스의 하루를 알린다.

2001년 3월부터 학교에서 일을 시작한 양원석(58)씨. 그는 근무한지 만으로 딱 10년을 맞는다. 10년이면 금수강산도 변한다고 했던가. 교통정리부터 경비까지 많은 일들을 하며 이 넓은 캠퍼스를 10년간 작은 오토바이로 누볐다. 그는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세월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의 백발이 그것을 증명한다. 머리가 하얗게 변한만큼 학교 모습도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차가 정문으로만 출입가능했어. 후문은 막아놔서 차는 못 다니고 사람만 지나다녔지. 그러다 6년 전 쯤에 후문에 새로 도로 뜬거야.”

그는 과거를 회상하듯 느릿하게 말을 이었다.

“예전에는 후문에 po방 하나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편의점이며 카페며 참 많이 생겼어.”

세월의 때를 묻혀 희미해진 주차선은 선명한 색으로 새로 덧칠해 개신 됐지만 몇몇의 운전자의 의식은 그렇게 개선되지 못했다. 올바르게 주차하지 못한 차들은 영락없이 그에게 포착된다. 그런 순간엔 그는 암행어사가 된다. 그의 손엔 마패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가 들려 있다.

한 곳에서 한결같이 10년을 보낸 그는 우직한 성품대로 현자는 새차든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다보니 교수와 입씨름 하게 된 일도 있었다. 통로에 주차하려던 그 교수에게 다른 데 세워달라고 하니 언성을 높인 것이다.

“지금 와서 보면 다 추억이지. 학교 안에서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

그래도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 훨씬 더 많았다.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찾아와 음료수 상자를 놓고 가는 자연